

# 파리지앵을 달군 연극·오페라, 그 화려한 날들...



레퐀블릭 광장의 중앙에 놓인 조각상. 공화국의 상징인 마리엔느 아래 자유, 평등, 박애의 여신이 자리하고 있다.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세계의 문화수도

## 파리 오디세이

<13>

파리와 극장



르네상스를 지난 17세기 프랑스를 지배한 것은 고전주의였다. 개인의 발견과 자유의 추구 등 르네상스의 가치들은 종종 무질서로 귀결됐다. 이전의 평화와 질서로 돌아가길 원했던 이들의 바람이 고전주의 사조의 기저에 깔려있다. 근대적 이상이 고대의 예술과 만나게 된 것이다. 프랑스 고전주의 3대 극작가로 꼽히는 코르네유, 몰리에르, 라신의 위상은 17세기 프랑스인들에게 연극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이었음을 반증한다. 국립극단이 생긴 것도 이 때였다.

1670년대 파리는 세 곳의 대형 극장이 운영 중이었다. 1548년 극장 용도로 설립되긴 했으나 경쟁력이 없었던 부르고뉴 극장은 1577년 카트린느 드 메디치가 데리고 온 이태리 극단에 자극을 받아 전문성을 기르고 20여년 후 왕립 극단을 결성한다. 부르고뉴 극장의 독주는 1634년 마레 극장이 생기면서 막을 내린다. 마레 극단은 1636년 코르네유의 비극 '르 시드'를 대성공으로 이끌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 17C 대중화 정점... 국립극단 첫 등장

### 매일 연극·오페라·마리오네트 공연

### 레스토랑·카페·상점·카지노 등 성행

### 귀족·서민들 방탕한 밤문화 양산도

세 번째 극장이 몰리에르의 극단이 있던 팔레 투와얄 극장이었다. 몰리에르는 1643년 파리에서 극단을 차리고 부르고뉴와 마레 극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참혹한 실패를 맛보고 빛더미에 앉아 징역살이까지 해야 했다. 그는 12년 동안 지방의 소도시를 돌며 내공을 쌓다 1658년 루이 14세의 초청으로 파리에 입성했다. 금의환향한 몰리에르는 팔레 투와얄 극장에서 극단을 운영하며 17세기 파리의 연극 전성기를 이끌었다.

몰리에르 사후 마레 극단은 몰리에르 극단과 합병돼 게네로 극장에 자리 잡았다. 1680년 루이 14세는 게네로 극장의 배우와 부르고뉴 극장의 배우를 아울러 국립 극단인 코메디 프랑세즈를 설립했다. 코메디 프랑세즈 극장의 별칭 '몰리에르의 집'에서 알 수 있듯 프랑스 연극사에서 몰리에르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그는 풍자적 희극을 주로 선보였고, 특히 개성이 강한 인물들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근대 희극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오페라 극장에서 투브르로 뻗어있는 오페라 대로의 끝 광장에 위

치한 국립 극장 코메디 프랑세즈는 리슐리외의 관으로도 불린다. '극단' 코메디 프랑세즈가 지금의 '극장'으로 입주한 것은 1799년이다. 코메디 프랑세즈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12년의 일이다. 당시 러시아 원정 중이던 나폴레옹 1세는 모스크바에서 87개 향으로 이뤄진 칙령을 내려 코메디 프랑세즈의 정관 등을 마련했다. 이 법령의 뼈대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코메디 프랑세즈와 접해 있는 팔레 투와얄에는 현재 문화부 등이 입주해 있다. 투브르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팔레 투와얄은 1628년 리슐리외의 추기경이 지었다. 당시에는 팔레 카르디날(추기경 궁)로 불리었다. 팔레 카르디날의 극장이 금의환향한 몰리에르가 활동한 근거지가 된 곳이다. 어린 루이 14세가 지냈으며, 나중에는 그의 동생 필립 오를레앙 공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팔레 투와얄에서는 연극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이 끊이지 않았는데 투브르로 궁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귀족과 왕실 일부에게 사랑방과 같은 장소였다.

대혁명의 기운이 감돌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사이 팔레 투와얄은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러시아 역사가 카마르친은 "파리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팔레 투와얄에 있다" (1790)고 했고, 프랑스 소설가 라모트-랑공은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고, 팔레 투와얄은 파리의 수도"(1825)라고 했다. 팔레 투와얄 안에서는 코메디 프랑세즈를 포함해 크고 작은 극장들이 있어 매일 연극, 오페라, 마리오네트 등 공연이 이뤄졌고, 매뉴얼이 있는 현대식 개념의 레스토랑과 여러 곳의 카페가 성행 중이었다. 보석, 시계상 등 사치품 가게가 400 곳에 달했고, 대형 카지노에 심지어 장너들이 영업을 할 정도였다.

있는 자들의 극장이 팔레 투와얄을 중심으로 펼쳐 있었지만, 서민들의 극장은 지금의 레퐀블릭 광장 인근에 조성돼 있었다. 레퐀블릭 광장은 가로 280 m, 세로 120 m로 너비만 3.6 ha의 거대한 장방형 공간이다. 제 2제정 시대 오스만 남작의 주도 하에 진행된 파리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이었다. 광장의 중심에는 공화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서고, 대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인 1889년 '레퐀블릭(공화국) 광장'으로 명명됐다.

도시 정비 이전의 광장은 저수탑이 있는 조그만 광장에 불과했는데, 광장 보다는 여러 갈래길 중 하나인 탕플 대로가 유명했다. 대로 주변에는 훗날 파리 코뮌을 주도하게 될 국제노동자협회가 들어서 있었다. 이 지역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귀족들의 방탕한 밤 생활이 투브르 궁 인근의 팔레 투와얄에서 이뤄지는 동안 탕플 대로에서는 주인공의 신분만 빼면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다른 하나의 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밤마다 어디선가 살인, 강도 등의 폐악질이 벌어지는 이 길의 별칭은 '범죄 대로'였다.

1830년대 탕플 대로에 크게는 3000 석이 넘는 혼합 극장, 역사 극장 등 대형 극장에서 500 석 규모의 소형 극장까지 20 곳 가까운 극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쯤이면 극장마다 매표 창구에 표를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늘어서고, 그 사이로 프로그램 캘린더를 손에 든 호객꾼들이 큰 소리를 치며 지나는 것이 매일 저녁 이 거리의 풍경이었다. 주변의 카페나 먹거리 상점도 덩달아 호황을 이뤘다. 순간 거리에 정적이 오면, 각 극장의 연극이 막을 올리는 시간이다. 탕플 대로 극장의 관객들은 팔레 투와얄과 달랐다. 연극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 없이 야유를 보내거나 배우에게 욕을 퍼부었다.

탕플 대로의 극장가를 메웠던 파리지앵들은 제 2공화국의 탄생을 알린 1848년 2월 혁명에서 거리로 뛰어나간 시민들이기도 했다. 어렵게 쟁취한 공화국은 다시 쿠데타로 인해 제 2제정을 맞았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밤마다 뜨거워지는 탕플 대로의 극장 문화와 군중들이 달가울 리 없었다. 도시 정비라는 미명 하에 훗날 레퐀블릭 광장이 되는 저수탑 광장은 초대형 공간이 됐고, 탕플 대로는 주변의 극장들이 모조리 없어지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해졌다. 정치적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파리의 서민층이 주로 모여 즐기던 장소가 해체된 것이다. 민중들이 모이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은 부당하게 집권한 모든 세력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현대의 파리지앵들이 레퐀블릭 광장을 바스티유 광장과 함께 시위 장소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탕플 대로에 있던 대부분의 중소형 극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대형 극장들은 장소를 옮겼다. 역사 극장과 올림픽 서커스 극장은 파리 중심에 있는 샤토레 지역으로 가서 재개장했고, 개때 극장은 이름을 살짝 바꿔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혼합 극장은 용케 살아남았지만 1966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행이 들어섰다. 지금도 레퐀블릭 광장 주변에는 세기를 넘어 운영 중인 소형 극장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코메디 프랑세즈 전경. 국립 극장인 이 곳은 몰리에르, 라신 등을 레퐀블릭 광장에 리로 삼아 프랑스 연극 전통의 보존을 목표로 한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홍스페이스 모던가구 & 이태리가구 모던가구 런칭 30% 특별가 판매, 혼수가구 환영!**

78만원, 4인셋 98만원, 4인셋 175만원, 2+2 198만원

**홍스페이스** SPACE  
www.hong79.com(홍천구닷컴)  
www.NAVER 홍스페이스 검색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1899-0240